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ELEBRATING TOGETHER

140

1885  2025



〈사진: 보라매열린교회 장로님들과 육성수 담임목사님 (오른쪽 끝), 2024년과 2025년 CST 장학금 후원. 사진: 2024.10.〉

올해 가을에도 김남중 부학장과 함께 한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CST는 지난 45년간 미국과 한국에 있는 한인 교회 및 신학 교육 공동체와 중요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CST 학생 중 40%가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중 25%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출신이며, 42개 이상의 교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미국, 또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의 M.Div.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놀랄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많은 신학교에 대단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 학기에 등록한 한인 M.Div. 학생은 8명입니다. 2026년 봄학기 입학 신청을 하는 학생을 고려하면 다음 학기에는 10명이 쉽게 넘을 것입니다. LA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ST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기대치 않았던 현상입니다. 이 학생들은 모두 지역 교회에 배정되어 목회 경험을 쌓아 가며, 학문적 학습을 목회 실천에 접목합니다. 교회의 도움과 안내를 받아 아파트를 구하고 자동차도 구입해 미국 생활의 적응도가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인 유학생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로부터 적절하고 적극적인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유학생은 학업에 쫓겨 안수 과정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유학생들은 교회와 연결되어 재정적 지원도 잘 받으며 또한 안수 과정도 학업과 함께 준비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은 CST 교수진이 더 이상 백인 주류가 아닌 것, 현재 교수진이 광범위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 CST가 한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지원, 그리고 UMC의 Cal-Pac 연회가 한국 학생들을 사역에 더 많이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10개의 신학교와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총 150명 이상의 학생이 유학과 CST에 관심을 두고 입학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이 입학 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기록적입니다. 이 중에는 철학박사 학위를 마치고 학자가 되기 위해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글로벌 비전을 갖고 미국에서 사역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미국 UMC에서 요즘 목회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유학생이 요즘 비자 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목회학 석사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CST는 벌써 15년 전에 학위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산물 중 하나가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입니다. “갈등, 치유 및 변혁의 실천신학”이라는 주제를 15년 전에 설정했는데, 아직도 이 주제는 글로벌 교회를 위한 중요한 담론으로 여전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CST의 많은 학위 과정 중 가장 성공적인 학위로 발전하여, 꾸준히 높은 학생 등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이구동성이 학위 과정은 목회, 목회 상황, 그리고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동문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대화하는데, 사모님이 제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몇 년 전 (남편) 목사님이 두 주간 D.Min.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사람이 달라져서 왔더라고요. 내가 없는 동안 아이들과 씨름하며 고생했죠?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데, 그전에는 2주 동안 수업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불평했을 텐데요.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 피드백을 듣는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단순한 부부관계에 관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갈등, 치유 및 변혁을 추구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목회의 많은 것이 관계에 관한 것이며,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작은 개인적 변화부터 시작하여 교회와 사회도 변혁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닐까요.

CST는 한국 신학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ST 박사 학위를 받은 동문 중 45명 이상이 신학교 또는 일반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교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더불어, 많은 CST 동문이 교단과 학계에서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동문도 있습니다. CST 동문은 모교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듯합니다. 저도 CST를 후원하는 후원자 여러분께 CST 자랑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몇 분들을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찍은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 분들의 후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합해질 때에 우리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동력입니다.



〈사진: 김병학 회장님과 김은자 사모님께 장학금 후원 감사패를 드리다. 2025.9.26.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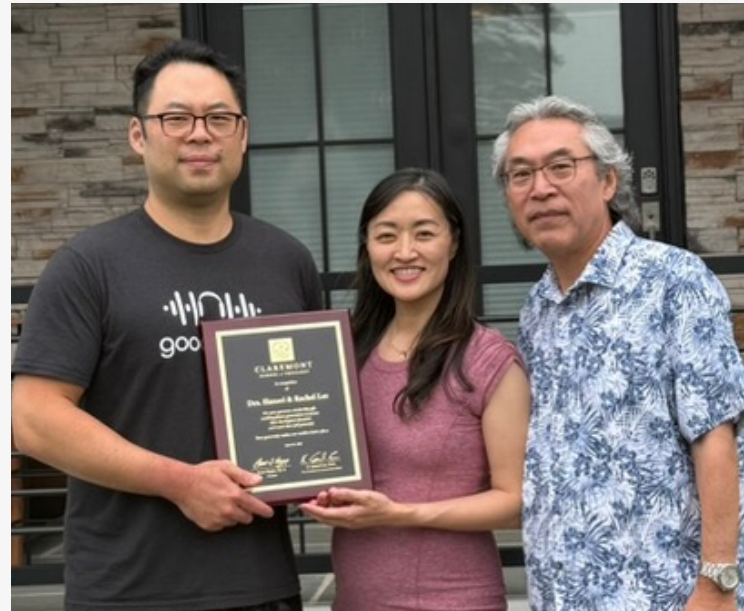
〈사진: 임용빈 장로님과 임성희 권사님께 장학금 후원 감사패를 드리다. 중앙: 이순영 담임목사 2025.11.9. KUMC of 샌디에고〉



〈사진: 이병준 회장님과 이복형 사모님께 장학금 후원 감사패를 드리다. 2025.11.9. KUMC of 샌디에고〉



〈사진: 정영조 장로님과 정화순 권사님. 안나장학회 2025.8.16. 나성영락교회〉



〈사진: 이한솔 박사, 이지영 박사님께 장학금 후원 감사패를 드리다. 2025.6.15.〉



〈사진: 이진우 회장님께 장학금 후원 감사패를 드리다. 2025.5.1. 로스엔젤레스〉



〈사진: 장학금 후원자이며 CST 동문이신 김웅민 목사님과 사모님. 2025.5.19. 파세디나〉



〈사진: 장학금 후원자이며 CST 동문이신 신영각 목사님과 신영기 사모님. 2025.5.19. 파세디나〉

2025년 한인 재학생 겨울 파티 안내



〈사진: 2024년 한인 재학생 겨울 파티 전체사진〉

한인 재학생 겨울 파티는 12월 28일 주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모임은 이경식 부총장 자택에서 진행되며 주소는 632 S Grand Ave, Pasadena, CA 91105이다.

이번 겨울 파티는 가을학기를 마친 한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편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준비한 모임이다. 가족도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일상과 학업 이야기를 나누고, 한 학기 동안 있었던 다양한 경험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유할 수 있다. 미국 생활에서 겪은 순간들,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 등 여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파티에서는 맛있는 식사와 디저트를 제공된다. 식사의 교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번 모임은 특별한 순서 없이 자유롭게 머무는 파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학생들이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고, 새해를 앞두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겨울 파티에 대한 문의: 한인학생회 회장 박성진
이메일: seongjin.park@cst.edu



〈사진: 2024년 한인 재학생 겨울 파티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

4,000명의 젊은 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해



〈사진: 김래용 박사, Ph.D. '07〉

몇 달 전부터 CST 한인 뉴스레터를 받아 보게 되어 매우 반가웠습니다. 소식을 접할 때마다 CST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현재 협성대학교에서 교목실장과 신학대학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래용 교수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CST에서 M.Div. 과정(1년)과 Ph.D.과정(6년)에서 구약학을 공부하고 졸업하였습니다. 당시 CST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한인 학생들과 교제했고, 방학 동안에는 도서관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시험을 준비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매년 열리던 한인 페스티벌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시범을 보였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지만, 그 시절의 추억과 감동은 여전합니다. 귀국 후에는 에스라-느헤미야서와 관련된 논문 10여 편을 발표했고, 이후 예언서 연구에 집중하여 3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야-예레미야-에스겔서를 다룬 저서를 출판했고, 현재는 12소예언서와 관련된 저서를 출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각의 예언서의 구조와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성대학교에서 신학대학 학장과 신학대학원 학과장으로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신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교목실장으로서 4,000여 명의 재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 협성의 모든 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CST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회복되고 발전하여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만간 학교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진: 박경식 박사, Ph.D. '16〉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에서 스위니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구약학 박사학위(Ph.D. in Hebrew Bible)를 취득한 박경식입니다. 현재 목원대학교 교목실 교수로 섬기며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국제협력처 부처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구약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등재학술지 「구약논단」의 편집위원장을 맡아 학문 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클레어몬트 도서관에서 논문을 준비하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배움과 격려가 오늘 저를 지탱해 주고 있으며,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실히 연구하고, 다음 세대가 건강한 지도자가 되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9년째로 접어든 신학 강의와 집필 그리고 교양 강의는 한층 더 성숙하게 성장하는 듯 합니다. “오경연구와 서사비평,” “대예언서와 편집비평,” “시가지혜서와 공시적비평,” “구약성서해석학,” “예언과 이스라엘사회,” “현대사회와 종교,” “성서의 이해” 등의 과목 등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구약의 풍성한 신학과 신앙의 세계로 학생들을 초대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급격한 변화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성경의 전승과 신앙의 경험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해하는 귀중한 기초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저는 신학과 교양 수업, 공동체성경읽기, 그리고 구약 동아리 데바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편의 논문을 집필하며 전통적인 구약 연구뿐 아니라 사회학적 해석과 현대적 쟁점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언서의 사회정치학적 글로컬 담론 해석을 통한 기독교 리더십 연구: 대화이론(Dialogism),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출판하여 예언자들간의 담론 읽기가 현대의 극심한 이념 양극화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ChatGPT와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삼상 28:3-25)의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 읽기를 통한 구약신학적 비평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AI 윤리 문제를 구약 신학적으로 해석하였고, 올바르게 건강한 AI 활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약성서비평학총서」 저술과 편집을 이어가며 저의 연구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레어몬트에서 배운 학문과 신앙의 정신을 이어가며, 더 많은 귀한 후배들이 세계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이정환 목사,
D.Min. 2024.1.입학〉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월에 입학한 예장 통합 소속 목사로, 화곡동 교회에서 사역 중인 이정환입니다. CST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 선후배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복입니다. 입학을 고민할 때 큰 도전을 주신 김남중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겨울, 김용환 교수님께 깊고 응축된 학문적 가르침을 받으며, 수업하는 기간 내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며 시대에 응답하는 목회를 고민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운 학문을 목회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올해 가을 「초고령사회에서의 선교적교회 교육과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 논단』 57-3호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교회 안의 노인 비율은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시대에 노년 사역이 있더라도 주로 ‘웰빙’에 집중되어 있고 노년의 ‘영성’이나 ‘웰에이징’과 같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고민 중에, 가르침을 토대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의 구성은 ‘연령차별주의(Ageism) 이해를 통한 노인상 회복’, ‘구약/신약성경을 토대로 한 성경적 이해’, ‘초대교회를 토대로 한 사회적 이해’, ‘심리적·신체적 이해’, 마지막은 과거의 기억을 신앙 안에서 성화하고 자아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자서전 쓰기’를 제안했습니다. 노년을 그저 돌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사역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동적 존재임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논문 발표로 끝내지 않고,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노년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김수정 교수님과 오현선 교수님의 강의 내용도 추가하여 ‘MBTI를 통한 자신과 상대에 대해 이해하기’,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진단’,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자기 쉐도우(shadow) 성찰’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 중에는 “노년의 삶이 다르게 보인다”, “내 삶을 새롭게 정리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주변 성도들에게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의 목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모든 교수님과 CST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수업도 기대됩니다.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논문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학문과 목회 사이의 간극을 줄이도록 노력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논문 바로가기: https://www.put.ac.kr/js_nondan/chulpan_haksulji_sub_previaw.asp?hsm_seq=151&hss_seq=1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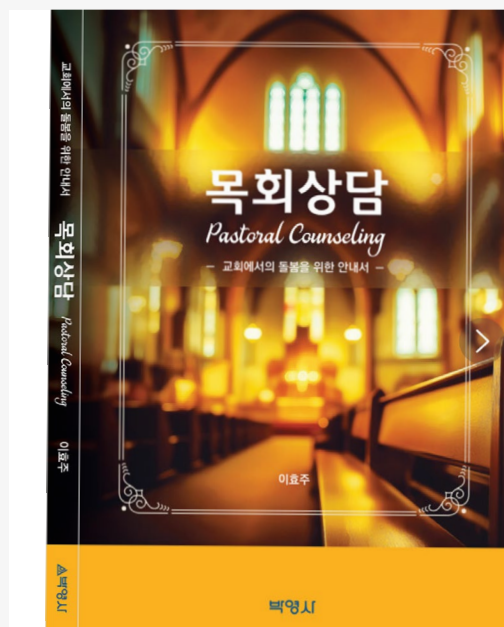
바벨론에서 피운 꽃: 목회상담자의 우회로와 소명



〈사진: 이효주 박사, Ph.D. '16〉

2016년 클레어몬트에서 목회상담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에 귀국해 현재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었지만, 뜻하지 않은 우회로를 걷게 되었고, 어느덧 오십을 바라보는 지금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닌 소망임을 신뢰하며, 바벨론 같은 자리에서 조차도 꽃필 수 있음을 믿고 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의 한 열매로, 2020년부터 강의해 온 교양교과목인 성과 사랑을 위한 교과서를 지난해 여름 출판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까지 읽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깊이 가르치게 될 목회상담 분야에서도 책을 쓰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첫 책을 출판한 박영사에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책인 목회상담: 교회에서의 돌봄을 위한 안내서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목회상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상담 분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톤 보이슨(Anton Boisen)’의 생애와 공헌”을 다룬 글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부제에 맞게, 교회 안에서 돌봄 사역에 필수적인 윤리적 지침, 공감과 경청의 태도 등 미국 병원에서 받은 CPE 훈련(6 units)과 클레어몬트 내의 클라인벨상담소(the Clinebell Institute)에서 27개월간 진행된 임상훈련을 통해 배운 점들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목회신학에서 중요한 학습 도구인, ‘신학적 성찰(theological reflection)’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시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가 말한 “어떤 사건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 신학적 이해에 창조적 공헌을 이루어낸다”는 통찰을 차치하고라도, 목회자와 상담가에게 성찰 능력은 더 나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필적인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접하는 교회 내 다양한 돌봄과 상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조금 더 깊고 튼튼한 도구를 얻게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2025-2026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1일 기준 -

이경식 부총장
육성수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육성수 담임목사)
이종오 박사
이한슬 박사과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강신욱 목사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일 기준): \$76,920

- | | |
|---------------------------------------|-------------|
| - KEF 잔액(1990.03. - 2025.12.) : | \$2,511,654 |
| - KLS 잔액(2018.10. - 2025.12.) : | \$856,918 |
| - General Fund (2024.03. - 2025.12.): | \$13,728 |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기준 -

개인 후원

이병준 회장
이상영 목사

단체 후원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월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 성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 명단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기준): \$14,2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